

멜라니 클라인 2부

2023.04.18

클라인은 무의식적인 환상이 그들의 초기 정신 안에 편재해 있으며, 모든 아이들의 인식과 대상관계에 역동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환상을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는 이런 견해는, 리비도 발달단계 이론에서 대상관계 발달의 이론으로 그 강조점이 변하는 상황과도 연결되었다. 클라인은 어린아이들이 대상을 식별하는 순간부터 실제 대상과 환상 대상 모두와, 특히 환상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더 나아가 아이가 어머니의 젖가슴이나 아버지의 페니스에 대해 갖는 초기의 부분 대상관계는 그의 내적 대상, 초자아, 그리고 환상 생활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프로이트는 정신구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인 초자아를 내사된 부모상이라고 설명했고, 클라인은 이 개념을 확장시켰다. 그녀는 환상 속에서 유아가 어머니의 젖가슴, 아버지의 페니스, 그리고 부모 신체의 다른 부분들을 내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합된 부모상, 그 후에는 하나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교 중인 부모와 결국에는 독립적인 사람으로서의 부모가 내사된다. 이러한 내적 대상들은 실제의 외적 대상과 똑같은 복제물이 아니며, 유아의 환상과 투사에 의해 항상 채색된다. 그것들은 좋은 젖가슴, 나쁜 젖가슴과 같은 이상적인 대상과 박해하는 대상으로 분열된 것일 수도 있고, 보다 통합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부분 대상 및 전체 인격으로서 내사된 부모상들이 있으며, 그것들은 때때로 환상 속에서 매우 왜곡되기도 하지만, 아이가 점차 현실과 갖는 관계가 향상될수록 현실적이 되어간다.

클라인에 의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무의식적 환상을 놀이와 모든 활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초기 논문인 "아동의 리비도 발달에 있어서 학교가 갖는 역할 (The Role of the School in the Libidinal Development of the Child)" "에서, 클라인은 무의식적 환상이 아이의 학습활동 근거에 자리잡고 있고, 자유로운 놀이뿐 아니라 모든 학교 활동이 아이의 환상 생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논문에서 클라인은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교 건물은 어머니의 몸을 나타내는데, 그 몸 안에는 아버지를 상징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모든 학교 활동은 어머니의 몸을 침투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클라인은 학습활동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숫자나 철자들은 성적 기관을 나타낼 수 있다. 두 어린이 환자의 경우, "i"는 페니스를 "e"는 질을 나타냈으며, 다른 아이의 경우에는 "I"와 "O"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성적 기관을 나타냈다. 이 두 철자나 숫자를 한데 모으는 것은 성교를 의미하는데, 클라인은 논문의 첫 부분에서 학교 활동의 장애를 주로 거세 불안과 관련시키고 있다

프릿츠에게는 나누기를 하는데 있어서 설명하기 힘든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나

누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답은 항상 틀렸다. 한번은 내게 나누기를 할 때 무엇보다도 그 숫자를 붙잡아 끌어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것이 무슨 말이나고 물으니, 그는 그 숫자 - 마치 어머니가 13야드 높이의 돌 위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녀 팔을 붙잡아 찢어버리고 분해하는 것 같이 정말 기분 나쁘다고 말했다. 조금 전에 그는 톱으로 몸이 잘렸지만, 곧 다시 살아나는 서커스단의 한 여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내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물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의 환상과 관련해서 실제로 모든 아이가 네 조각으로 나누어진 어머니의 신체 가운데 일부를 갖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어떻게 그 여자가 비명을 질렀고, 입속에 종이가 잔뜩 들어있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를 수 없었으며, 이때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등에 관해 상세히 묘사했다. 그 아이는 예리한 칼을 가져다가 그녀가 어떻게 잘렸는지를 설명했다. 먼저 가슴을 가로질러, 배 위쪽으로, 그리고 페니스와 대변과 잘린 여자의 머리는 정확히 두 쪽이 되도록 위아래로 잘랐다. 이런 현상들을 해석한 뒤 나누기와 관련된 그의 장애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레타 (Greta)라는 또 한 아이는 문법을 분석하는 것을 구운 토끼-어머니의 젓가슴과 성기를 상징—를 실제로 절단하고 해부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연구 초기부터 클라인은 아이가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에 관한 환상을 상징화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수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상징주의를 모든 승화의 기초로 보았다. 상징주의에 대한 그녀의 견해는 아이가 어머니의 신체와 갖는 관계와 자신의 환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을 자세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더욱 풍부해지고 분명해졌다

아이는 대상을 나타내는 기관들(페니스, 질, 젓가슴)을 파괴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 불안은 아이로 하여금 문제가 되는 기관들을 다른 것과 동일시하도록 한다; 이 동일시 때문에 이것들은 차례로 불안의 대상이 되고, 계속해서 아이는 새로운 대상과 상징주의(symbolism)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는 새로운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징은 모든 환상과 승화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주체와 외부 세계 및 일반적인 현실과 관계 맺게 하는 기초가 된다. "나는 심한 가학성과 그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지식욕의 대상이 어머니의 몸이며, 그 안에 있는 환상적 내용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클라인은 임상 연구와 이론 형성 모두에서 아이가 외부 세계에 흥미를 갖게 되는 것과 지식욕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알고자 하는 충동을 아주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934년까지 지식 본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후에 그녀는 생명본능 및 죽음본능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서 그리고 지식 충동이 이 둘 모두로 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식 본능이라는 용어를 포기했다.

프로이트는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성행위를 훑쳐보는 것과 같은 관음증적인 본능 요소의 파생물로 간주했다. 또한, 그녀가 세계에 관한 관심을 아이 자신과 부모의 몸에 대한 원초적 관심으로부터 전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클라인은 이 점을 프로이트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강조하였다. 클라인의 관점에서 본다.

면, 어머니의 몸을 소유하고 공격할 뿐 아니라 탐구하려는 소원은 세계를 탐구하는 지식 추구의 주된 근원이며, 상징은 이 둘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이다. 그리고 외적 대상들은 무엇보다도 아이와 부모의 몸 또는 그 부분들에 대한 상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정신병적인 소년 딕(Dick)의 분석에 기반하고 있다. 네 살 된 딕은 상징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아이였다. 그는 말 한다도 하지 않고, 놀지도 않으며, 대상과의 관계 또한 없었다. 그는 부모나 유모가 있든 없든 반응하지 않았고, 어떤 불안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아이는 문의 손잡이와 문을 밀고 닫는 것, 그리고 기차역에 대해 약간의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관심을 이용하여 클라인은 그와 접촉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이 진행됨에 따라, 딕은 불안을 억압하지 않고, 경험하기 시작했다. 차츰 유모가 상담실에 그를 혼자 남겨둘 때마다 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딕은 놀이를 통해 환상 속에서 자신을 압도하며 불안으로 가득 채우는 어머니의 몸을 가학적으로 공격했다. 예를 들어, 그는 클라인에게 나무로 된 장난감 마차를 칼로 잘게 썰게 하고는, 곧 불안해져서 손상된 마차와 그 부스러기들에 "꺼져버려!"라고 소리치면서 그것들을 내던졌다. 그리고 나서 그는 빈 찬장 속으로 숨었다. 후에 그가 손상된 마차와 석탄을 나타내는 나뭇조각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재빨리 그것들을 한쪽으로 밀어 두고 다른 인형들로 덮어 버렸다.

아이의 분석이 진전됨에 따라, 그가 그것들을 밖으로 집어던지는 행위는 손상된 대상과 자신의 가학증(또는 그 수단) 모두를 축출시키려는 상징적인 행동임이 분명해졌다. 가학증은 이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로 투사되었다. 딕에게 세수대야는 어머니의 몸을 상징했으며, 그는 특히 물에 젖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이는 자신의 손과 내 손을 물에 담그고 나서 불안하게 내 손과 자신의 손에서 물기를 닦아냈는데, 그 후 곧바로 그가 오줌을 눌 때 보였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불안을 보였다. 오줌과 똥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위험한 물질을 의미했다."

딕이 경험한 강한 불안 때문에 어머니의 몸과 그것을 상징화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그의 모든 관심이 단절되었으며, 따라서 그의 환상 생활과 외적 실체에 관한 관심이 단절되었다. 딕은 현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켰고, 어둡고 텅빈 어머니 몸에 대한 환상 속에 숨은 채 자신의 환상 생활을 단절시켰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의 몸의 내용물-아버지의 페니스, 똥, 동생들-을 나타내는 바깥 세계의 다른 대상들로부터 자신의 주의를 철수시켰다. 그에게서 자신의 페니스-가학적인 신체 기관-와 배설물은 위험하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제거되고 거부되어야 했다. "클라인이 이러한 환상들과 접촉함에 따라 아이의 무의식적인 불안이 감소되고, 보다 더 의식화되었을 때, 상징적 정신과정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분석이 진전되고 딕의 놀이가 풍부해져 감에 따라, 클라인은 과도한 죄책감과 불안이 아이의 정신과정에 장애를 가져다주는 요소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당시에 그녀는 조속하게 도달한 성기적 성과 죄책감을 관련시켰다. 이 논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정신병 환자의 분석을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그때까지는 정신병 환자와는 상징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것은 또한 아동 병리학 연구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당시 아이의 정신병은 거의 진단되지 못했고, 제대로 인식되지도 못했다. 그러나 클라인은 아이의 정신병은 알려지는 경우보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였고 아이의 정신병이 치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상징의 형성이 안 되면 구체적 사고만 가능하고 표면적인 것만 알고 배경의 의미를 모른다. 상징화 과정이 되지 않으면 원시적인 환상이 있으며 이것이 정신병이다.

정신분석 용어로서의 상징은 의식으로부터 억압된 것을 나타내고, 전체적인 상징화 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수행된다. “억압된 것만 상징화된다; 억압된 것만 상징화될 필요가 있다.” 상징은 정신 내적 갈등의 결과물이며, “모든 상징은 자기 및 가까운 친척들에 대한 관념 또는 출생, 사랑, 죽음의 개념들을 나타낸다. 비록 억압된 개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상징들이 사용될 수 있지만, 어떤 주어진 상징은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갖는다.

아이는 어머니를 전체적인 인격체로 사랑할 수 있게 되며, 어머니를 하나의 전체적인 대상으로 보게 될 때, 비로소 다른 방식으로 어머니를 인식하게 된다. 아이가 박해적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이며 사랑받는 어머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는 내사된 어머니가 내부와 외부의 박해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전체적이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느낀다. 만약 어머니가 자신을 박해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이는 동시에 어머니 역시 그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에 어머니는 이전의 부분적인 대상들과 대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박해적 대상과 이상적 대상으로 분리되지 않는 전체 대상으로 느껴지게 된다. 즉 어머니는 아이의 만족감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좌절과 고통의 원천으로도 느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아이의 사랑은 양면성을 지니며, 증오의 감정으로 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는 환상 속의 박해자들과 유아 자신의 증오와 가학에 의해서 언제나 파괴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이런 어머니가 계속 내사된다면, 파괴는 하나의 내적 실체가 되며, 유아의 내적 세계는 황폐하고 혼돈스럽게 된다.

반대로, 아이가 사랑 받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면, 아이는 그녀의 상실에 대해 고통스런 감정을 느끼게 되며, 새로운 감정의 양상을 나타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는 새로운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 새로운 자리에서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상이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대상에 대한 상실감 또한 하나의 전체로서 느껴질 수 있다."

상실감, 슬픔 그리고 애타는 그리움의 감정에 죄책감 또한 추가된다. 즉 아이는 자신의 충동과 환상들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내적 대상을 정신 실재로서 경험한다. 우울적 자리는 초기 단계의 환상 속에 존재하는 박해자들의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편집적 불안과 죄책감, 상실감 및 그리움 등의 우울한 감정들이 혼합된 복합체이다. 이 단계에서 자아는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좋은 대상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다고 느낀다. 어린이와 어른들은 우울적 자리로 퇴행함으로써 우울증을 앓으며, 그 우울적 자리는 죽어가는 또는 죽은 대상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겪는 고통과 불안의 핵이다.

이 우울적 자리에서 자아는 박해불안과 우울 불안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간다. 자아는 대상에 대한 증오가 강할 때 박해불안을 느끼고, 대상에 대한 사랑이 우세할 때 우울 불안을 느낀다.

이와 관련해서 클라인은 종종 아이들이 잘 먹지 않는 것과 아이와 성인 모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건강염려증적 불안과 같은 증세에 관해 설명하였다.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 가운데

잘 먹지 않는 것은 음식에 나쁜 것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는 편집적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음식을 먹어 치우는 행위가 혹시 자신의 좋은 대상을 해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울적 두려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건강염려증 환자를 분석하면서 얻은 임상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그 환자가 증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의 변화과정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그 두려움은 자신에 대한, 즉 자신이 독살당하거나 파멸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였다. 그러나 분석과정에서 자신의 우울적 자리에 도달하면서 그의 건강염려증적 두려움은 질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체 기관들이 불쌍하고 위협에 처해 있으며, 그것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체 기관들이 돌봐줘야 할 상처 입은 대상들을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녀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는 우울적 자리의 문턱에 있으면서 좋은 내적 대상을 안정적으로 확립시키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우울증 환자는 가혹한 초자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초자아의 가혹성은 환자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편집적 공포가 만들어 내는 박해감과 더불어 죽어가는 대상 혹은 죽은 대상들이 자신들을 본래의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 질책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우울적 자리의 발달에 있어서 유아의 중심적 과제는 충분히 좋고 안정적인 내적 대상을 자아의 핵심에 확립하는 일이다. 만약 이것이 실패하면 아이는 편집증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울적 자리는 정신병의 고착점과 신경증의 고착점 사이에 존재한다.

우울적 자리의 발달 과정에서 새로운 방어기제들이 발달되기 이전에 사용되는 내적 박해자들에 대한 주된 방어기제들에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나누는 분열, 이상화, 거칠게 밖으로 내보내는 축출, 그리고 박해자들과 증오스런 자기의 부분들을 멸절시키는 것 등이 있다.

우울적 자리는 조적(的) 성격을 지닌 또 다른 방어기제를 형성한다. 이러한 조적 방어기제들은 우울적 고통과 같은 심리적 실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그것의 주요 특징은 심리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조적 방어기제는 대상에 대한 의존성과 양가감정을 부인하게 하며, 상실된 대상이 고통이나 죄책감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전능적으로 조종하고 그 대상을 경멸적인 태도로 대하며, 승리감을 갖게 한다. 반면에, 또는 동시에, 파괴와 상실에 대한 감정을 모두 부정함으로써 이상화된 내적 대상 안으로 도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어기제들은 정상적인 성장의 한 부분이지만, 만약 과다하거나 오래 지속된다면, 온전하고 좋은 대상관계의 성장과 우울적 자리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저해할 것이다.

좋은 대상에 대한 죄책감을 수반하는 우울적 고통은 회복의 소원들과 좋은 내적 대상을 회복시키는 환상들을 외적 및 내적으로 활성화시킨다. 좋은 내적 대상의 확립은 이러한 소원들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다시 나타나는 어머니와 그녀의 돌봄은 필수적이다. 다시 나타나는 어머니는 아이에게 대상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과 탄력성을 확신시켜주며, 더 중요하게는 아이의 적대감이 갖는 전능성을 줄여 주고, 아이 자신의 사랑과 회복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킨다. 어머니가 자주 보이지 않거나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할 때 아이는 우울적 박해불안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정상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성인의 애도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성인의 삶에서 사랑하는 대상 - 깊은 차원에서는 항상 부모 또는 형제를 나타내는- 이 사라지는 것은 애도하는 사람 안에 있는 우울적 자리의 갈등을 일깨운다는 것이다. 그를 지원해주던 좋은 외부 대상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자신을 남겨 두고 간 대상을 향한 미움이 커지기 때문에, 애도하는 사람은 실제의 외적 대상을 잃은 데 대한 고통뿐 아니라, 우울적 자리에서 유아가 느꼈던 것 처럼, 좋은 내적 대상을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 그때 그는 초기 편집적 공포와 우울적 공포에 노출된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애도 반응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즉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편집적으로 의사나 간호사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우울증적인 자기 질책이나 자기비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애도 과정에서 조적 방어기제들도 활성화된다. 상실의 고통에 대한 방어로서 무의식적 경멸과 승리감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것은 다시금 죄책감을 증가시키고, 자신의 마음속에 상실된 사람을 좋은 내적 대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결국 고통과 애도의 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볼 때, 애도 작업은 사랑하는 사람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재발견하는 현실검증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클라인은 이 문제를 더 끌고 나간다. 그녀는 이러한 현실검증이 외적 세계에서의 대상의 부재를 재발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세계 및 사랑하는 사람과 동일시되었던 최초의 내적 대상들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이 애도 작업은 내적 대상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편집적 감정들로 퇴행하는 것과 상실에 대한 조적 방어들을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만약 사별한 사람이 그의 발달과정에서 우울적 자리의 불안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는 애도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그 결과로 비정상적인 애도와 정신질환이 야기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가 우울적 자리의 불안을 극복한다면, 애도 경험은 오히려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결론은 이것이다. 비정상적인 애도와 조울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애도에서도 유아기의 우울적 자리가 재활성화된다. 이 자리 안에 포함된 복합적인 감정, 환상, 불안들이 지닌 성질은 발달 초기에 아동이 일시적인 조울상태와 애도상태를 거친다는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이 조울상태와 애도상태는 유아 신경증에 의리는 극복된다.

유아의 우울적 자리의 정상적인 애도와 비정상적인 애도, 혹은 조울상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렇다 : 조울증 환자와 애도과정에 실패한 사람들은, 비록 각자의 방어들은 크게 다를지라도, 그들이 초기 아동기에 좋은 내적 대상들을 확립하지 못했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내적 세계를 안전한 것으로 느낄 수 없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들은 유아기에 우울적 자리를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애도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로 인해 재생된 초기 우울적 자리가 어린시절에 자아가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을 통하여 다시금 수정되고 극복된다. 그 개인은 실제로 상실한 사랑하는 대상을 내적 세계 안에 다시 회복시킨다. 그것은 동시에 내면에 최초의 사랑하는 대상, 즉 궁극적으로 좋은 부모를 다시 확립하는 것이다. 이 최초의 사랑하는 대상은 실제의 상실이 발생할 때와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껴진다. 애도는 자신 안에 최근에 상실한 그 사람과 함께 좋은 부모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며, 해체되고 위험에 처한 자신의 내면세계를 재건설함으로써 비탄을 극복하고,

안전감을 되찾으며, 진정한 조화로움과 평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1940년에 쓴 논문에서 클라인은 우울 자리가 지닌 창조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우울불안이 절정에 도달한 상태에서 유아가 어떻게 자신의 사랑과 좋은 내적 상태를 재창조하는 능력과 기술을 활성화시키며, 점차로 전능감을 포기하면서 외적 대상들을 복구하려고 노력하는가에 관해서 서술했다. 그녀는 우울적 자리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가 좋은 내적 대상으로 풍성해지며, 이 풍성한 자아가 승화와 창조적 노력을 위한 주요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 성인이 성공적으로 애도과정을 극복했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자아가 풍성해질 수 있다.

애도는 우울적 자리의 고통과 불안을 다시 일깨우며 또한 초기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갈등도 되살아나게 한다. 클라인이 "애도와 조울 상태와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예로 들었던 환자 D는 어머니가 죽기 전날 밤에 다음과 같은 꿈을 꾸었다. 그는 농장 뜰에 누워 있는 황소를 보았다. 그 황소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고, 매우 불가사의하고, 위험해 보였다. 그는 황소 한 편에서 있었고, 어머니는 다른 편에서 있었다. 그는 집 안으로 도망치면서 어머니를 위험한 곳에 내버려 두었다고 느꼈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도 도망칠 것이라는 다소 막연한 희망을 가졌다.

이 꿈에 대한 연상이 의미하는 것은 황소의 모습으로 나타난 아버지와의 폭력적이고 나쁜 성교로 인해 환자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것이다. 이때 아버지도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꿈 속의 황소가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황소에게 위협당하고 있는 남자의 연상 가운데 드러나듯이, 환자는 자신 또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가 성교하는 장면을 내면화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서 그는 부모의 성교가 서로를 파괴시키는 위험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그 환자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달리는 버스가 되어 곧 불타오르게 될" 헛간으로 돌진했다."

그의 연상에서 보여주듯이, 그 버스는 결국 그 자신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의 내적 세계에서 죽어가거나 죽은 어머니는 자신의 격렬한 성적 충동 혹은 자신의 폭력성을 투사한 대상인 아버지에 의해 파괴된다

그녀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시작을 우울적 자리 일부분으로 보게 되었다. 어머니가 하나의 전체 대상으로서 아이에게 인식될 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의 환상 안에 등장하며, 따라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우울적 자리의 틀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모든 관계는 환상 안에 있는 부모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오이디푸스적 질투는 젖가슴에 대한 원래의 양가감정에 덧붙여져서 좋은 내적 대상으로서의 젖가슴과의 관계를 더욱 위험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우울적 자리에서 부모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부로서 아이의 좋은 전체 대상이며, 또한 아이의 환상 안에서 공격받는 대상이 되는데, 특히 그들이 성교를 통해 결합되어 있을 때 더욱 그러하다.

초기 논문에서 클라인은 그러한 공격들이 야기시키는 두려움에 대하여 묘사했다. 그러나 우울적 자리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그녀는 사랑과 죄책감 및 상실의 감정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소원은 거세의 위협을 통해 포기된다고 본 반면, 클라인은 아이들로 하여금 오이디푸스 소원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불안(거세 또는 사라짐,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해치지 않으려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라

고 말했다. 우울 불안에 따른 보상 욕구는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회복시키며, 그들의 성교를 파괴적인 행위로 만들고 싶어 했던 소원을 극복하고 그들의 성적 행동을 사랑과 상호 창조적인 행동으로 회복시키게 한다. 이 아이의 성적 소원은 회복 환상들을 실어 나르는 매개체가 된다. 오이디푸스적 상황에서 소년은 어머니를 회복시키고, 성교를 통해 그녀에게 아이를 주는 성적 능력이 있는 아빠와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열 살 된 소년 리처드의 자료를 통해, 그가 어떻게 그러한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의 환상 속에서 아버지의 페니스는 종종 파괴적인 것으로, 그리고 아기들은 끔찍한 괴물들로 나타난다. 그는 치료가 끝날 무렵에야 비로소 자신을 도와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었다.”

클라인은 또한 어린 소녀가 만족스런 성교를 소망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적 어머니의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우울적 자리의 개념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녀는 어린이 발달에 있어서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들, 환상들, 그리고 방어기제들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아이가 발달과정에서 성취해야 할 과제는 자아의 핵심에 좋은 젖가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모의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사들을 확립하는 일은 우울적 자리의 극복에 따르는 큰 고통을 수반한다. 우울적 자리에 내포된 고통과 내적인 위험 상황은 방어들을 형성하도록 하며, 그 방어들은 우울적 자리에 대한 방어로서, 우울적 자리가 발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존스의 기록에 의하면, 한 어린 소년이 어머니가 동생에게 젖을 줄 때, 젖꼭지를 보고 “엄마가 저걸로 날 깨물었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이작스는 언어 발달이 늦은 한 살 8개월 된 어린 소녀의 예도 들고 있는데, 그 소녀는 밀창이 너덜너덜해진 어머니의 구두를 무서워했다. 그래서 구두를 치워 버렸지만, 15개월후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그 구두가 어디 있다고 물으면서 “그것들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생의 초기부터 환상들은 현실에 의해 형성되고, 현실을 닮아간다; 이 둘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있다. 좋은 젖을 주는 젖가슴에 대한 리비도적 환상은 유아의 좋은 경험에 의해 강화되는 반면, 나쁜 경험은 나쁘고, 박해하는 대상, 그리고 자신의 나쁜 감정을 표현하는 전능성의 환상들을 강화시킨다. 반면에 환상은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박해불안이 지배적인 유아는, 젖을 잘 먹지않는 유아의 관찰을 통해 잘 알 수 있듯이, 화를 내고 두려워하며, 젖가슴을 거부할 수도 있다. 환상은 자아의 성장과 현실검증을 통해 아주 서서히 현실로부터 분화된다. 그러나 환상 생활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되고, 사고력과 같은 고도의 정신 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모체를 제공한다. 아이작스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Interpretation of Dreams)”을 인용한다: “모든 의식적인 것은 예비적인 무의식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 예비적인 무의식 단계는 무의식적 환상이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상징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부 세계에서 무의식적 환상의 상징적 표현을 발견하는 가운데, 클라인이 논증했고, “아동의 리비도 발달에 있어서의 학교의 역할 (1923)”과 “자아 발달에 있어서의 상징 형성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Symbol-Fom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Ego, 1930)에서

서술했듯이, 아이는 외부 세계를 탐험하는 것을 배우며, 그것과 관계를 맺는다.

하이만은 내사와 투사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며, 생의 전반에 걸쳐 지속하는 기본적인 정신 기제라는 클라인의 견해를 따랐다. 생의 시작부터 유아는 욕망의 대상인 젖가슴을 환상과 현실에서 젖을 먹는 과정을 통해 내사한다. 그리고 그것의 좋음을 추구하고 내사하며, 이 내사된 것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내사물은 자아의 기능일 뿐 아니라, 자아 형성에도 중요한 뿌리가 되는데, 특히 최초의 대상에 대한 내사는 자아와 초자아의 토대가 된다. 이런 견해는 프로이트가 "자아와 원본능"에서 사람은 욕망의 대상을 내사하여, 자아 안에 가지고 있을 때 그 대상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일치한다.

투사는 단지 파괴적 감정과 박해 대상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리비도는 좋은 대상을 만나 그것에 투사되기도 한다. 그리고 경험을 이상화하고 이상적인 젖가슴을 창조하는 것은 유아 자신의 좋은 감정의 투사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유아의 주된 관심은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환경에서는 투사된 악이 실제의 좋은 경험으로 약화하는 반면, 선은 증가한다. 이것은 강한 자아와 도움을 주는 내적 대상의 기초이며, 정신 건강의 토대이다. 초기 내사는 전적으로 자아 중심적이다. 내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게 나쁜 것은 악이다. 이런 자아 중심성이 우울적 자리에서는 감소하지만, 내사과정은 계속된다. 여기에서는 단지 내사만이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증진한다. 또한, 내사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지배를 받는다. 하이만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투사 행위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구강기적 본능의 요소는 배불리 먹고 싶은 비성애적인 욕망에 애착함으로써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머니의 젖가슴이다. 그리고 자신을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되며, 동시에 자체 - 성애적으로 된다. 즉 아이는 자신의 몸에서 대상을 발견한다. 본능의 다른 요소들은 자체 - 성애적으로 됨으로서 시작되고, 나중에야 비로소 외적 대상으로 향하게 된다.

유아가 환상 속에서 좋은 젖가슴을 내사함으로써 자체-성애적으로 된다. 유아가 젖가슴을 포기하고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다면, 그것은 젖가슴을 내사하고, 엄지손가락을 그것과 동일시한 것이다. 이런 견해는 사실상 내사가 "대상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프로이트의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자체 - 성애적 상황에서 유아는 좋은 젖가슴을 내사하고, 나쁜 대상과 나쁜 감정을 투사한다. 자기애적 단계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자기애적 단계는 보다 후기의 현상이고,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더 적대적이며, 좌절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여기에서는 환각적인 소원 성취 환상이 줄어들고 나쁜 외적 대상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 좋은 내적 대상을 향하는 것 이상으로 우세해진다. 그리하여, 자기애는 편집증과 같은 심각한 형태의 정신질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인은 후기의 연구에서, 자기애에 대한 이런 견해를 확장시켰다.

하이만은 논문에서 자체-성애와 자기애가 좌절에 대처하는 방식이며, 내적, 외적 대상에 대한 환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체 - 성애적이고, 자기애적이며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대상관계는 점차적으로보다 성숙한 대상관계에 자리를 내주지만, 투사와 내사는 일생을 통해 계속된다고 그녀는 주장하였다. 하이만과 아이작스가 함께 쓴 세 번째 논문은 퇴행을 주제로 한 것인데, 환상과 초기 대상관계를 다시 다루고 있다. 프로이트는 퇴행을 정신질환을

알려주는 주요한 기제로 보았다. 그것은 고착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심리성적 발달에서, 생물학적으로 리비도는 구강기 단계에서 항문기와 소변기를 거쳐 성기기 단계로 발전해 간다. 초기의 목적들은 결코 완전히 포기되지 않고, 성기기의 우위가 확립되면, 거기에 종속된다. 하지만, 발달단계에서 리비도는 전성기기 단계에 고착될 수 있다. 그런 고착은 전성기기의 성적 목적에 매달리는 것으로 귀착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인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 고착은 발달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억압을 가져오고, 인격 구조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고착은 리비도의 흐름을 가로막아 리비도 발달의 어느 기간 동안에 많은 양의 리비도를 보다 초기의 목적과 대상에 머물러 있게 한다. 프로이트는 그런 고착을 그것이 외적 요소 때문이든 또는 내적 요소 때문이든 간에 좌절과 관련시켰다.

클라인은 어린이 정신분석에서 고착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관찰했다. 그녀의 견해로는 공격성과 불안이 고착을 만들어낸다. 생의 시작부터 공격적인 충동과 리비도적인 충동 사이에는 갈등이 있다. 그 안에서 리비도의 힘이 점차로 공격성과 불안을 이겨낸다. 따라서 공격성은 창조적이고 생산력 있는 성기기적 리비도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배치된다. 발달의 어느 시점에서 공격성과 불안이 지나치면 리비도 또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고착된다.

아이작스와 하이만은 대상관계와 환상 생활, 그리고 공격성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떠나서는 고착과 퇴행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마약중독에서 나타나는 구강기적 고착을 한 예로 들고 있다. 이 경우에 초기의 식인적 환상은 불안, 죄책감, 우울증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계속 새로운 구강기적 만족에 의해 완화되어야 하고, 재확인되어야 한다. 따라서 리비도의 구강기적 고착은 불안과 죄책감 때문인 것이다. 공격성으로 인해 느끼는 죄책감과 불안의 상황은 정상적인 발달의 일부분이다. 클라인은 어린이 정신분석에서 종종 불안이 발달 및 회복의 환상들과 리비도의 활동을 더 높은 수준의 성격 조직으로 이끄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불안이 고착으로 이끌어 가는가, 발달로 인도하는가는 불안의 정도에 달려 있다. 불안이 극복될 수 없을 때, 악순환이 생긴다. 이때 많은 양의 리비도는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성기기 단계에 고착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약한 성기기적 성격 조직이 형성되고 좌절을 견디는 능력이 약해지므로, 쉽게 퇴행이 발생한다.

초기의 좋은 젓가슴과 좋은 페니스의 구강기적 내사는 능력이 있는 성적 활동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성적 활동은 좋은 상호 먹이기(feeding)의 모든 상징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초기의 젓가슴, 어머니의 몸, 그리고 성행위 하는 부모를 공격한 것에 대한 죄책감은 성숙한 성기기적 표현에서 발견되는 회복의 소원을 불러일으킨다. 퇴행이 일어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히 좌절 때문이 아니다. 보다 원시적인 형태의 죄책감과 불안을 자극하고, 퇴행하도록 하는 것은 회복 충동이 그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때 리비도의 퇴행뿐만이 아니라, 보다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불안이 가중된 내적 및 외적 대상관계로의 퇴행이 발생하게 된다.

클라인과 그녀의 동료 연구자들은 말한다: 우리는 정신질환의 주된 발병 원인을 이러한 원시적이고 파괴적인 충동이 지닌 목적의 재현이라고 주장한다.

억압되고 초자아가 됨으로서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은 결국 공격성뿐이다. 우리가 죄책감의 기원과 이에 관한 정신분석의 발견들을 공격 본능과의 관련해서 고려한다면, 나는 매우 많은 과

정이 더욱 간단하고 분명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임상자료 속에서 그녀는 격렬한 공격본능을 일으키는 원초적인 부분 대상들, 예를 들어, '리타의 찌찌와 같은 것에 대하여 설명하곤 했다. "어린이 정신분석에서 클라인은 Mr. B라는 한 남성 동성애 환자에 대하여 기술하였는데, 그는 심한 건강염려증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하숙집에 살 때 가벼운 위통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어떤 여자가 사다 준 빵에 독약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또 그는 그 여자가 자신을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고,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여자들의 돌출된 부위, 즉 가슴이나 엉덩이 때문에 여자의 몸을 증오하고 두려워했다. 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그의 무의식적인 환상 안에서 여자들의 젖가슴과 엉덩이는 가학적인 페니스들과 배설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또한 젖가슴이 깨무는 이빨을 지니고 있다는 두려운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클라인은 이러한 환상들을 처음에는 구강기(젖가슴이 깨무는 이빨이 되는)에서, 그리고 후에는 항문기와 남근기에서 발생하는 가학증의 투사로 보았다. 그는 이런 나쁜 부분 대상으로부터 분열된 이상적인 페니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고무 젖꼭지와 우유병으로 나타났고, 그 후에는 함께 구강성교 놀이를 했던 그의 형의 페니스로 나타났다. 클라인은 그가 모유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 구강기 단계에서 젖가슴에 대한 애착의 경험이 없었고, 이것이 그가 후기 구강기 가학적 단계에서 고착을 형성한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울상태의 심리 발생론에 대한 기고(1935)'에서 분열과 부분 대상관계들을 직접 연결하면서 부분 대상관계, 분열, 박해불안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프로이트는 파괴적인 충동이 구강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구강기를 빠는 구강기'와 '무는 구강기'로 나누고, 이빨이 나는 시기에는 파괴적인 충동이 생겨나지만 초기 구강기 즉 '빠는 구강기'에는 그런 공격적인 충동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유아기 발달단계는 부분 대상의 단계이고, 박해불안과 분열적 심리 기제가 지배하는 단계이다. 페어베언은 "분열적 자리"라는 개념을 원초적 자아 최초의 분열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였다. 클라인은 이상적이고도 공격적인 초기 대상관계의 측면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를 원래는 "편집적 자리"라고 불렀다. 1942년에 그녀는 분열과 박해불안이 공존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편집-분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클라인에게 죽음본능은 초기 자아의 측면에서 볼 때 멸절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이 기본적인 공포가 곧 죽음본능의 방어적 투사로 인도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클라인은 죽음본능을 투척하는 순수한 생물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유기체가 아니라, 멸절의 두려움을 방어하기 위해 죽음본능을 외부로 투사하고 있는 자아를 보았다.

이 초기 자아는 매우 약하고 통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불안에 직면하여 파편화되고 해체되는 경향이 있다. 해체와 전적인 멸절에 대한 공포는 내부의 죽음본능 활동하여 자극된 가장 깊은 공포이다.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명본능과 죽음본능 사이에 투쟁이 시작된다. 분열, 투사, 그리고 내사는 최초에 사용되는 방어기제들이다. 생명본능의 명령에 따라 자아는 분열되고, 죽음본능을 밖으로 투사해 버린다. 동시에 생명본능도 어떤 이상적인 대상을 창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투사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혼돈 상태에서부터 원시적 자아 조직이 출현한다. 자아는 리비도적인 부분과 파괴적인 부분으로 나뉘고, 그 후에 분열된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

이 단계에서 자아의 목표는 그의 이상적인 대상을 내사하고, 그것과 동일시하는 동시에 파괴적인 충동들을 담고 있는 투사된 박해자들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생명본능과 죽음본능 사이의 중심적인 갈등은, 이상적인 대상과 동일시되고 한편이 된 선한 리비도적 자기와 박해자들 사이의 투쟁이다. 내가 "박해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이유는 이상적인 대상은 온전한 것으로 느껴지는 데 반해, 나쁜 대상은 보통 파편화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박해자들이 부분적으로는 투사된 죽음본능에 의해 파편화된 자아의 조각들이기 때문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깨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구강기적 가학증이 물어뜯어 산산이 조각난 미워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소변기와 항문기 가학증이 구강기 가학증에 덧붙여지는데, 이렇게 박해자들은 모든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가학성을 흡수한다.

이 단계의 중심적인 불안은 이러한 박해자들이 혹시 자신의 자아와 이상적인 대상을 파괴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안에 대항하여 분열적 기제가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이상적인 대상과 나쁜 대상 사이의 분열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든지, 좋은 대상을 과도하게 이상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박해 공포에 대한 방어로서 전능적 부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 기제의 근저에 있는 환상은 박해자들을 전능적으로 멸절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환각적인 소원의 성취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다. 소원 성취의 환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아는 자신의 좋은 대상에 대한 이상화와 동시에 나쁜 대상들을 전능적으로 멸절시키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에 실패하고 유아가 배고픔을 느낀다면, 그것은 유아에게 있어서 박해자에 의해 침범당하고 멸절당하는 공포의 경험이 된다. 이 최초의 자아 발달단계에서 대상 부재의 경험이란 없다. 즉 좋은 선 대상의 부재는 나쁜 대상들에 의한 공격으로 느껴진다. 유아는 배고픔을 자신이 물어뜯기는 것으로 경험하고, 좌절을 박해로 느낀다. 좋은 경험들은 이상적인 대상의 환상과 융합된다. 비록 초기 구강기가 전(前) 양가감정의 단계이지만, 이것은 증오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사적 동일시를 도입 했다. 투사적 동일시는 초기 투사에서 발전된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충동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분들(즉 아기의 입과 페니스)과 신체의 부산물(소변과 대변)이 환상 속에서 대상 안으로 투사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임상자료에서 투사적 동일시의 활동에 대하여 자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아 발달에 있어서 상징 형성의 중요성" 5장 74쪽 이하를 참조할 것)이라는 논문에서, 그녀는 디크(Dick)이 자신의 가학성을 자신의 나쁜 배설물 또는 페니스와 동일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것들이 어머니의 몸 안으로 투사되며, 또한 그때 어머니의 몸은 투사된 부분들과 동일시된다고 설명했다. Mr. B의 환상에서 젖가슴은 투사된 탐욕적인 입과 동일시되고 깨무는 입이 되거나, 아이에게서 투사된 부분들인 나쁜 페니스와 배설물로 가득 차 터져 버릴 것처럼 되었다. 깨무는 입의 환상에서 젖가슴은 투사된 입과 전적으로 동일하게 여겨지며, 터져 버릴 것 같이 돌출된 젖가슴의 경우에, 그것은 젖가슴 안

에 있는 페니스와 동일시된, 투사된 부분들을 담고 있는 젖가슴에 대한 환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젖가슴은 그것들의 차지가 되었고, 또 망쳐졌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과 완전히 동일시된 것은 아니다. 클라인은 이러한 종류의 환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분열적 기제들에 대한 해설”에서 ‘투사적 동일시 (projective-identification)’ 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냈다.

Mr. B의 경우, 깨물고, 뚫고 들어오며, 더럽히는 젖가슴은 자신의 가학적인 충동들이 투사된 것이다. 이러한 투사 근처에는 자신의 깨무는 입과 꿰뚫는 페니스와 더럽히는 배설물에 대한 환상이 있다. 자기(self)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기 전체가 환상 속에서 어느 한 대상 안으로 투사될 수 있다. 덕은 투사된 부분들로 가득한 두려운 어머니의 몸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분열된, 내부가 텅 비어 있어서 자기 전부를 그 안으로 투사할 수 있는 어머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러한 환상은 빈 찬장에 숨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투사적 동일시는 내가 곧 예수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이라는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기초로 작용한다. 투사의 목표가 환상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다. 덕의 경우에, 투사의 목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비어 있는 어머니의 자궁 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파비안의 환상은 탐욕스럽고, 시기심에 찬 투사적 동일시의 환상으로서 시기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지위와 성격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투사적 동일시의 목표는 여럿이다. 즉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제거해 버리는 것, 대상을 차지하고 대상이 가진 것을 퍼내는 것, 대상을 조종하는 것 등이다. 그 결과 중 하나는 그 대상과 투사된 자신의 일부분을 동일시하는 것이다(그래서 투사적 동일시이다). 나쁜 부분들의 투사는 박해 감정을 갖게 한다. 그러나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의 나쁜 부분만이 아니라, 좋게 느껴지는 부분까지도 포함한다. 즉 좋은 부분은 분리를 피하고, 대상을 이상화하기 위해, 그리고 내적 갈등을 피하기 위해 투사된다; 내면이 나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느끼면,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좋은 부분을 이상적인 젖가슴 안으로 투사시킨다. 이것은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를 가져오는 한편, 자아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투사적 동일시는 대상을 자신 안으로 다시 내면화하기 때문에 자기애적인 대상관계와 자기애적인 내적 구조의 기초가 된다.

자기의 부분들이 투사되고, 대상이 그것들과 동일시되면, 그때 거기에는 대상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며, 또한 그 대상에 의해 계속해서 통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난다. 나쁜 부분들이 투사되면 그 대상은 두려운 박해자가 되고, 좋은 부분들이 투사되면, 그 대상에 대한 특별한 의존이 생긴다. 그때 그 대상의 상실은 자신의 일부분이 상실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대상은 통제되어야만 한다. 동시에 대상은 자신의 가치 있는 모든 부분을 담고 있으므로, 개인은 그 대상에게 전적으로 지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사랑에 대한 분열적 두려움은 투사적 동일시가 주된 심리 기제로 작용할 때 발생한다. 이때, 사랑한다는 것은 대상에게 나의 좋은 부분을 투사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신은 고갈되고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투사적 동일시에 기초한 대상관계의 위험 때문에, 분열적 개인들은 모든 대상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려고 할 수 있다.

생의 초기에 일어나는 죽음본능의 투사는 편집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신체의 부분들에 대

한 염려와 관련된 불안을 일으키며, 자신의 좋은 부분들을 투사시키는 것은 자기의 고갈을 가져온다. 투사적 동일시의 작용은 다시금 특별한 불안을 야기시키는데, 그것은 자신이 투사한 대상에 의해 보복당하는 두려움이다. 이것이 내사를 가로막고 방해한다. 자기의 부분이 대상에게 투사됨으로, 거기에는 감금당하고 통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망상들은 이런 환상에 근거해 있다. 밀실 공포증도 이와 비슷한 두려움에 근거한다. 자아의 파편화, 분열, 투사는 모두 자아를 약화한다. 원하지 않는 자아의 부분들을 전능적으로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은 더욱 깊은 손상을 가져온다. 분열성 방어기제들은 원치 않는 자아의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 공격성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방어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아가 약화하면, 유아는 우울적자리에서 직면해야 하는 새로운 불안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죽음본능의 투사는 박해 공포를 일으킨다. 이 나쁜 대상들은 다시 내사되어 초자아의 박해적 측면을 형성한다. 동시에 생명을 주는 대상을 추구하는 생명본능 또한 부분적으로 투사되어 이상적인 대상을 창조한다. 이때 이상적인 대상은 부분적으로 동일시됨으로써, 자아와 초자아의 핵심이 된다.

자아의 성장과 발달은 생명본능의 작용에 달려 있다. 바람직한 발달 상황에서 좋은 경험이 지배적일 때 나쁜 충동과 나쁜 대상을 밖으로 투사시키려는 압력은 적어진다. 투사가 감소됨에 따라 박해 공포가 감소하고, 양성 순환이 자리잡게 된다. 박해불안이 감소되면 이어서 공격성이 감소되고, 불안과 불안을 투사해야 할 필요성도 감소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상적인 대상과 박해 대상 사이의 균열이 감소하고, 대상과 자아의 통합 단계, 즉 우울 적 자리로 점차 옮겨가게 된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자아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들로 나뉘어진다. 즉 자아는 파편화된다. 이것은 투사적 동일시의 작용으로 인해 대상과 종종 혼동된다. 우울적 자리에서 자아는 통합되고, 상반되는 충동들 사이의 갈등에 노출된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대상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자아 중심적이고 전능적이다. 대상은 한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해부학적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또 이상적인 대상과 박해대상으로 분열된다는 의미에서 부분 대상이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대상관계는 주로 투사적 동일시에 기초하고 있다. 대상이 재내사되면 그것은 초자아의 이상적인 측면과 박해적인 측면의 뿌리가 된다. 우울적 자리에서 대상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모 한 쌍과 같이 인격적 존재이다. 그들은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완전히 선하거나 악한 존재로 분열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전체 대상으로 인식된다. 여기에서 대상 관계는 양가적인 것으로서 이것이 내사되면 우울적 초자아가 된다. 이 초자아는 사랑 받는 대상이며, 그것에 대한 공격은 죄책감을 불러일으킨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주된 불안은 자기의 생존과 관련된다. 그것은 내면의 죽음본능의 작용에 대한 공포 - 자기 파괴에 대한 또는 자기와 이상적 대상을 파괴하는 박해자에 대한 공포이다. 우울적 자리의 불안은 자신의 공격성으로 인해 대상이 입는 상처와 상실과 관련된다-자기가 느끼는 공포는 대상과의 동일시에서 오는 공포이다.

죄책감은 우울적 자리에서 자신이 좋은 대상을 공격한 것에 대한 인격적 책임감으로 나타난다.

다. 하지만, 초기 우울적 자리의 죄책감은 여전히 매우 박해적인 성질을 갖는다. 환상 속에서 공격 받고 상처 입은 내적 대상은 투사가 작용함으로써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임상적으로, 우울증 환자의 초자아는 투사로 가득하다. 박해감과 죄책감 사이에 있는 초자아는 매우 고통스러운 박해적 죄책감을 형성한다. 자책감 속에서 물린 대상은 자신을 문 대상을 다시 문다. 거기에는 책임감과 박해감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인식이 깃들어 있다.

우울적 자리는 의존적-유아가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것과 같은 철저한 의존 - 환경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심리적 성장과 좋은 대상을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외적 대상에 대한 의존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의존의 감소는 양가감정이 지닌 적대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좋은 대상의 내면화 과정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 자신의 보상적 능력에 대한 믿음이 증가하면 방어적 행동의 필요성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외적 대상에 대한 의존 또한 줄게 된다.

축출과 투사는 기본적인 원초적인 기제로서, 축출은 환상에서 구강기적 용어 (트림과 침뱉기)나 요도기와 항문기적 용어들 (소변, 대변, 방귀)로 표현된다. 삼켜지고 파편화된 나쁜 대상은 쫓아내야 할 대변과 동일시되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상화된다. 우울적 자리에서 파괴된 대상이 대변과 동일시될 때, 우울적 요소와 조적 경향성이 혼합되고 이것은 불안하게 대변에 집착하는 증상을 가져온다. 이것은 종종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변을 보유해야 할 필요성과 또는 그 반대로 그것을 축출해 버려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킨다.

대상에 대한 조적 통제는 종종 대상을 배설물로 변화시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아브라함과 클라인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배설물 대상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에서 강박기제가 생겨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고전적 이론에서는 아이가 항문기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특정한 종류의 대상관계를 발전시킨다고 보았으나, 클라인학파에서는 아이가 특정한 유형의 대상관계를 발달시키기 때문에 항문기 기제에 고착된다고 보았다. 클라인은 항문을 관통당하고 싶은 소망을 구강기 또는 성기기 경향으로부터의 방어적 전치로 보았다. 이때 항문은 입이나 질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클라인의 견해에 의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우울적 자리의 한 부분으로서 우울적 자리와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우울적자리의 극복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극복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부모가 전체적이며, 실제 인물로 인식될 때, 그들의 관계는 오이디푸스적 소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식된다. 젓가슴과 관계된 초기의 양가감정에 오이디푸스적 경쟁심과 질투심이 더해진다. 유아와 어린아이가 자신의 환상을 투사함으로써 배제, 좌절, 질투 그리고 시기심의 감정들이 더욱 강화된다.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떤 것이든 부모에게로 투사한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자신이 바라는 성적 만족을 부모가 서로 나누고 있는 것으로 경험한다. 강렬한 욕망과 좌절의 대상인 부모는 환상 속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우울적 자리에서는 자신이 부모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공격들이 오히려 상실감, 죄책감, 우울불안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상황에서 방어기제가 활성화되고, 편집-분열적 양태로 다시 돌아가는 퇴행이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부모는 이상적인 상과 전적으로 나쁜 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고, 또는 이상적인 대상으로서의 비성적인 부모와 혐오스러운 대상으로서의 성적인 부모로 나눌 수도 있다. 투사는 서로 결

합되어 있는 부모상과 같은 위협적인 형상들을 만들어낸다. 이런 현상은 멜라니 클라인의 어린이 분석에서 종종 발견된다. 조직 방어기제들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기제에는 파괴된 부모상과 이상화되고 힘 있는 부모상 사이를 나누어 놓는 분열이 포함된다. 이때 아이는 이상화되고 힘 있는 부모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조직 상태로 들어간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해 가는 것은 분열의 감소와 투사의 철회를 통해 아이가 점차 부모에 대한 자신의 성적, 공격적 소망을 인식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랑 받는 부모상에 대한 공격적인 환상을 인식하는 것은 성기기적 욕망과 환상들 안에 자신들이 파괴한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보상적 요소를 제공한다. 환상 안에서 발생하는 부모의 성적 행위에 대한 공격은 죄책감과 상실감을 일으키고, 좋은 부모상을 내적 및 외적으로 회복하려는 소망을 갖게 한다. 내적 부모를 회복하는 것은 창조적이고 생산력 있는 성기기적 성을 위한 내적 모델을 제공한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의 이동은 정신병적 기능에서 정상적인 기능으로의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울적 자리가 우세할수록 전능성과 투사를 통한 인지의 왜곡이 감소된다. 외적 및 내적 현실은 구별되며, 정신적 실재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고, 자신의 충동과 내적 대상의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현실검증 능력이 생겨나고, 자신의 환상과 현실에 대한 인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우울적 자리의 주요한 특성인 대상에 관한 관심은 현실검증 능력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대상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대상을 조심스럽게 살피게 된다. 대상의 온전성을 지키려는 소망은 점차로 투사적 동일시와 전능 통제를 포기하게 하고, 이것은 현실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억압이라는 방어기제가 점차적으로 분열이라는 방어기제 대신에 중심적 자리를 인계받는다. 수용할 수 없는 충동들은 투사에 의해 대상에게 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억압에 의해 심리내적으로 해결된다. 여기에는 대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된다.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능력, 그리고 대상의 독립성과 양가감정에 대해 인정하고, 허용하는 성숙한 대상관계 안에서 박해 또는 이상화의 결과인 분열과 투사가 사라지고 현실적인 관심이 자리를 잡게 된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투사적 동일시가 우세해지면, 자아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대상과 동일시된다. 덕은 자신이 칼로 잘게 썰어놓은 나무 조각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클라인 부인"이라고 말했다. 상징과 그 대상은 하나이다. 이것이 정신병적인 구체적 사고 (concrete thinking) 근처에 깔린 상징 형성의 방식이다. 우울적 자리에서 대상에 대한 전능적 소유는 포기된다; 대상은 애도 되고, 그 대상과 전적으로 동일시되지 않은채 그 대상을 대신하고 대표하기 위해서 상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상징은 건강한 것이 되고, 승화와 의사소통에 사용된다. 유사하게, 승화와 창조성이 발달하는 자리도 우울적 자리이다. 내적 대상과 관련된 죄책감과 상실에 대한 경험은 상실한 내적 대상을 내적 및 외적으로 재창조하려는 보상적 충동을 일으킨다.

클라인은 라벨 (Ravel)의 오페라 "아이와 마법들(L'Enfant et les Sortilèges)"에 나오는 콜렛의 가극(Colett's Libretto)과 카렌 미켈리스(Karen Michaelis)의 룩 크야르(Ruth Kjar)라는 화가의 성장 과정에 대한 빈 공간 (Empty Space)"이라는 글에 관해 논의했다. 콜렛의 가극에서 어머니가 "너는 마른 빵을 먹고, 설탕도 넣지 않은 차를 마시게 될 거야"라고 위협하며 떠

나 버리자 어린 소년은 분노로 가득 차서 주변의 고양이나 다람쥐뿐만 아니라 무생물 대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한다. 그가 공격하는 대상이 갑자기 매우 커지더니 그에게 복수한다. 그는 정원으로 도망치지만, 올빼미, 고양이, 다람쥐들이 그를 공격하려고 달려든다. 싸움하다가 다친 다람쥐가 땅에 쓰러진다. 불쌍한 마음이 든 아이는 다람쥐를 집어 들고 다친 발을 감싸준다. 마술처럼 동물들은 친해지고 세계는 다시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온다. 아이는 "어머니"라고 속삭인다. 클라인은 이 아이의 공격적인 행동이 지닌 상징적인 의미를 아이가 어머니의 몸을 나타내는 방과 어머니의 신체 내부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페니스와 아이들을 나타내는 다양한 대상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클라인은 이 논문에서 투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대상이 나쁘고 무섭게 변하는 것이 아이가 그것들을 공격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밀실 공포증과 편집적 자리로 이끄는 그의 투사 때문이기도 하다고 가정했다. 그가 다람쥐를 집어 들고 그 다친 발을 감싸주는 모습은 그의 정신 내부에서 편집-분열적 자리로부터 우울적 자리로의 이동이 일어났고, 그것과 함께 사랑의 능력이 발달하고 현실감이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이때 아이를 사로잡고 있던 괴물은 사라진다.

젊은 여성은 방에 있던 그림을 벽에서 제거했을 때 우울적 반응을 보였다. 벽 위의 텅 빈 공간은 "기분 나쁜 미소를 띠고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벽 위의 텅 빈 공간이 그녀의 고독한 내면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녀는 빈 공간이 철저하게 절망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다가 갑자기 벽 위에 직접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했다. 그녀가 그린 그림은 나체의 흑인 여성이었다. 이 그림은 그녀가 평생동안 그리게 될 그림의 시작이었다. 클라인은 그녀의 그림들을 예로 들면서 그녀가 그림 속에서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재창조함으로써 우울증을 극복해 가는 방식을 보여준다. 우울증은 내면에 적대적인 텅 빈 공간을 남겨 둔 내적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다.

클라인은 우울적 자리의 불안과 그것들이 불러일으킨 보상적 충동이 창조성의 뿌리라고 결론을 내렸다.

우울 불안은 발달단계마다 일어난다. 아이와 젖가슴의 분리, 그리고 젖떼기에 대한 인식은 젖가슴과 어머니를 공격하게 되는 원천적인 요인으로서 우울적 자리의 핵을 구성한다. 우울적 감정은 상실을 경험할 때마다 재활성화되며, 발달의 매 단계는 어느 정도의 상실을 의미한다.

배변훈련에서 이상화된 내적 배설물이 포기되어야 하며, 이것은 또한 걷는 것과 말하는 것 또한 분리됨과 분리함에 대한 인식을 갖는 발달단계인 초기 아동기에도 해당한다; 사춘기에는 유아적 의존이 포기되어야 하고, 성인기에는 부모와 부모 형상의 상실에 직면해야 하며, 점차로 자신의 젊음을 상실하는 것과도 직면해야 한다.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한편으로는 우울적 고통 때문에 편집-분열적 양태로 퇴행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과 발달로 나아가기 위해 우울적 고통을 극복하는 것 사이의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울적 자리는 결코 완전히 극복될 수 없다.: 우울적 자리의 완전한 극복은 완전히 성숙한 개인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이 아니다. 다만 우울증이 극복된 정도와 좋은 내적 대상이 자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개인의 성숙성과 안정성이 결정된다고 하겠다.

시기심

클라인은 시기심이 강화되는 두 가지 근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의 몸에 대한 소녀의 시기심으로서, 어머니의 몸은 초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단계에서 아버지의 페니스와 아기를 갖고 있다고 느껴진다. 따라서 페니스와 관련된 어린 소녀의 첫 번째 시기심은 어머니에 대한 시기심과 관련이 있다.

시기심의 두 번째 근원은 성적 관계에서 아버지의 페니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좌절되는 데서 기인한다. 클라인은 어린 소년의 발달과정에서도 페니스와 아기를 가진 어머니의 몸에 대한 소년의 시기심이 부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클라인은 자신의 새로운 글에서 시기심을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의 하나로 꼽았다. 그녀는 시기심이 가장 초기 유아기에 처음으로 발생하며, 기초적이며 원초적인 형태로 젓가슴을 향한다는 견해를 이론으로 정립했다. 어머니의 사랑과 엄마에게 보살핌, 그리고 어머니가 주는 음식은 유아에게 감사의 원초적인 형태인 만족감과 이러한 음식, 사랑, 안락함이 자신 바깥에 있다는 깨달음에 따르는 시기심 및 적대감의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감정들은 신체적인 수유 경험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유아에게 젓가슴은 신체와 정신 모두를 구성하는 근원적 자료가 된다: 유아는 젓가슴을 이상화하고 이를 사랑, 이해, 지혜, 창조의 근원으로 경험한다. 왜냐하면, 젓가슴은 유아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족스럽고 행복한 상황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젓가슴을 통해 만족을 느낄 때, 유아는 젓가슴이 그 무언가를 무한히 많이 갖고 있다고 느끼면서 풍족한 젓가슴에 대해 시기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시기심은 또한 좌절과 상실에 의해 조장될 수도 있다. 유아는 환상 속에서 젓가슴을 이상화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는 젓가슴이 자체의 풍족함을 혼자서만 즐긴다고 여길 수 있다.

클라인의 환자는 두 번째 면담에 오지 않았고, 그래서 세 번째 면담도 빠질까 봐 걱정하고 있었다. 불만에 가득 찬 태도로 다시 분석을 받으러 와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꿈을 보고했다. 그녀는 음식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주문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그녀는 줄을 서서 먹을 것을 직접 가져오기로 했다. 그녀의 앞에는 두어 조각의 작은 케익을 집어든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 여자는 그것을 가지고 도망쳤다. 그 환자도 또한 두어 조각의 케익을 집었다. 그 환자는 케익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망설였는데, 처음엔 그것을 "petite Frau" - Frau Klein-를 연상시키는 "petit firu"라고 하였다. 두어 조각의 petits fours 를 가지고 도망친 분석가는 주지 않는 젓가슴뿐만 아니라 자신만 배부르게 먹는 젓가슴을 상징한다. 따라서 젓가슴에 대한 시기심이 좌절에 더해진 것이다. 이 시기심은 강한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아기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신만 배부르게 먹는 어머니는 이기적이고 나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시기심뿐만 아니라 질투도 좌절에 더해진다. 분석적 상황에서 그녀가 면담에 오지 않았을 때, 그녀는 내가 그 시간을 혼자 즐겁게 보냈거나 혹은 내가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다른 환자에게 시간을 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꿈속에서 그녀 앞에 서 있었던 여자는 내가 자신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고 그녀가 생각하는 다른 경쟁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클라인은 질투 (jealousy), 시기심 (envy), 탐욕 (greed)을 조심스럽게 구분했다. 시기심은 질투보다 더 원초적인 것이다. 이는 부분 대상관계 (part-object relation)에서 형성되며, 삼자관계(triangular situation)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 시기심은 순전히 파괴적이고, 사랑과 존경의 대상을 겨냥한다. 질투는 오이디푸스적 삼각 관계에 속한 좀 더 섬세한 감정으로서 사랑에 근거하고 있으며, 경쟁자에 대한 증오는 욕망의 대상에 대한 사랑으로 작용 한다. 클라인은 크랩 (Crabb)의 동의어 사전「(English Synonyms)을 인용하여, 질투는 고상한 것일 수도 있고 비열한 것일 수도 있는 반면 시기심은 언제나 비열하다고 말하고 있다. 탐욕 또한 시기심과 구분되어야 한다. 탐욕은 대상이 지니고 있는 풍부한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탐욕으로 인한 손상은 의도적인 파괴의 결과가 아니다. 그러나 시기심의 직접적인 목적은 대상의 속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시기심을 유발하는 속성이 파괴되면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시기심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기심의 파괴는 방어적인 측면 또한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상을 망가뜨리는 것은 시기심의 표현이자 시기심에 대한 방어이다. 탐욕은 주로 내사에 의해 작용하고, 시기심은 파괴적인 투사적 동일시에 의해 작용한다. 물론 이 세 가지 종류의 감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상호작용 한다. 다루기 어려운 탐욕의 요소와 망가뜨리는 측면은 시기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망가뜨리기 위해 탐욕적일 수 있다. 즉 탐욕은 시기심에 대한 방어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하면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환상에 근거하고 있다. 과도하게 병적인 질투는 그 안에 시기심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원초적 시기심이 과도하지 않을 경우, 그 시기심은 경쟁자가 지닌 어떤 속성에 대해 부러워하는 오이디푸스적 현상으로 보기 쉬우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대한 질투심으로부터 분출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페니스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의 성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시기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시기심이 과도할 경우에 그 반대가 된다. 경쟁자의 속성들은 시기심의 대상이 되고, 대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한 욕망에서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하는 경쟁자에 대한 시기심으로부터 추구된다.

질투의 구성 요소인 강한 시기심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에 대한 시기심이 강할 때, 어린 소녀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 받는 대상이기보다는 어머니의 부가적인 속성으로서 요구되는 욕망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또 성인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이 다른 여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만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삶의 패턴을 조장한다. 어린 소년의 경우,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시기심은 부정적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여성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거나 혹은 동성애로 이어질 수 있다. 페니스에 대한 시기심은 보다 원초적인 젖가슴에 대한 시기심에 의해 더 깊은 영향을 받는다. 이때, 유아는 시기심의 대상인 젖가슴으로부터 이상화된 페니스를 향해 그 관심을 돌리는데, 이상화된 페니스는 다시 말해 본래의 젖가슴에 대한 시기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페니스에 대한 시기심이 다른 원천들(1945)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클라인의 초기 견해는 페니스에 대한 과도한 시기심의 근원을 젖가슴에 대한 유아의 시기심으로부터 찾아야만 한다는 가정으로 대체 되었다. 시기심은 아주 초기 유아기부터 작용하기 때문에, 만일 과도할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의 병리적 요인이 된다. 우울적 자리에 대한 설명에서 클라인은 항상 좋고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서의 젖가슴의 내사 - 자아와 도움이 되는 초자아의 핵—를 강조했다. 시기심은 대상의 좋은 면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사를 당연히 방해한다.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분리는 좋은 젓가슴이 내사되는 데 대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시기심은 좋은 대상을 공격하고 파편화함으로써 나쁜 것으로 만든다. 따라서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혼동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많은 정신병리적 혼동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상적인 젓가슴을 공격하는 시기심은 자아를 튼튼하게 하는 좋은 대상의 내사과정을 방해한다. 이는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초래한다. 좋은 내적 대상이 많이 파괴될수록 자아는 더욱 더 허약해지며, 허약해진 자아는 다시 더욱 강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시기심을 대상에게 투사함으로써 시기하는 초자아(envious superego)를 낳는다. 프로이트가 정신장애의 "The Oedipus Complex in the Light of Early Anxieties," Writings 1. MotoG 근원으로 보았던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아(oversevere superego)는 정신분석에서 종종 시기하는 초자아로 드러난다 즉 이러한 공격은 개인의 공격성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의 진취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에도 장애가 된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시기심은 대상에 대한 투사를 통하여 계속 박해불안을 유지시키고 가중시키며, 바람직한 내적 대상의 형성을 방해하며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우울적 자리에서 시기심은 죄책감의 박해적 측면을 유지, 가중시키고 절망감을 더하여 준다. 좌절로 인한 분노는 감사의 감정이 생길 때 극복될 수 있다. 질투는 질투 대상의 사랑에 의해 완화될 수 있으며, 오이디푸스적 상황에서 사랑의 대상이기도 한 경쟁자에 대한 감정을 수용함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랑 받는 대상의 좋은 점에 의해 자극된 시기심은 완화되지 않는다. 이 시기심은 강렬한 죄책감과 절망감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이에 대한 보상을 방해한다. 따라서 손상되지 않고 통합된 원래의 상태로 대상을 완전하게 복구하는 회복 충동은 시기심과 공존할 수 없다. 다만 대상이 부분적으로만 복구되고, 자아가 대상에 대해 여전히 우월한 위치에 남아 있는 조적 보상이 시도될 수 있다.

지나친 시기심은 강한 불안과 고통을 야기시킴으로써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의 점진적인 발달단계를 저해하는 강력한 방어를 조장한다. 편집-분열적 자리에서 시기심이 강하면 투사가 증가하고, 대상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며, 시기심은 평가절하된 대상 안으로 투사된다. 따라서 편집적 불안이 증가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분열이 다시 강화될 수 있고, 박해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상을 과도하게 이상화하기도 한다. 이 과도한 이상화는 이상적인 대상의 점진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과도한 이상화를 통해 갑작스럽게 형성된 이상적인 대상은 박해감에 대한 부인(denial of persecution)에 기초해 있으므로 지나치게 경직되고 불안정한 특성을 갖게 된다. 과도한 이상화는 시기심을 가중시켜 악순환을 거듭하므로 이상화된 대상은 증오와 박해의 대상으로 급속히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젓가슴으로부터 또 다른 대상, 즉 페니스로의 조속한 이동을 야기시키며, 결국 조속한 성적 발달을 가져온다.

클라인은 정신병적인 아동 덕의 분석에서 조속한 성적 발달을 주시했으나 이를 시기심에 대한 방어로 보지는 않았다. 그 보다는 모든 감정을 차단하는 다른 분열적 기제의 작용과 함께 시기심의 세력을 저지하는 사랑과 존경 등의 긍정적 감정이 강하게 억압된 현상으로 보았다.

우울적 자리에서, 좋은 대상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공격을 받고 그 가치가 평가절하되면 죄책감과 절망감이 야기되고, 그 결과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통합은 더욱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손상된 대상을 회복시키는 보상 과정이 방해받게 되고 조적 방어기제

가 강화된다.

정신분석 상황에서, 시기심과 이에 대한 방어기제가 결합될 때 부정적인 병리적 반응이 야기된다. 이 반응들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발달과 퇴행 사이의 동요로부터 심각한 반응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클라인은 그 예로 분석 과정에서 외적인 문제를 흡족하게 해결한 환자의 사례를 인용한다. 분석의 어느 단계에서 그는 이전의 분석이 자신의 불안을 불러일으켰다고 불평하였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했다. 그가 분석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이것을 깨닫게 된 사실이 그의 시기심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그는 분석가를 평가절하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에게서 이러한 종류의 반응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분석되어야만 했다. 클라인은 심각한 조울증을 앓는 여자 환자의 사례에서 환자의 이러한 매우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 묘사했는데, 그녀와 같은 꿈을 꾸었다는 분석 기간 동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때 그녀는 다음 꿈에 그녀는 나무 꼭대기 위에서 요술 용단을 타고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는 아주 높이 떠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방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 방안에는 소 마리가 아주 길다란 모포 조각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우적우적 먹고 있었다. 같은 날 밤 그녀는 바지가 젖는 꿈도 잠깐 꾸었다. 소는 분석가를 상징하는데, 이는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 꿈에서 아주 길다란 모포 조각은 끝없이 계속되는 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말들은 정신분석 과정에서 내가 한 모든 말들을 뜻한다. 환자는 이제 내가 그 말들을 주워 삼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의 성공적인 분석 성과에 의해 위협받은 분석가는 이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해야만 했다. 젖은 바지는 분석가에 대한 소변기적 공격(urinary attacks)을 나타낸다. 이 환자가 받은 분석적 도움은 강한 시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원초적인 젖가슴을 상징하는 분석가에 대한 평가절하와 파괴로 이어졌다. 좋은 내적 대상의 파괴와 박해, 그리고 이로 인한 죄책감은 심한 우울적 상태를 초래했다. 이 환자는 치료의 진행 과정에서 심각하고 부정적인 병리적 반응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였다.

시기심이 강할 때, 이것은 분열(split off, 무의식으로 떨어져 나감)될 수 있으며, 심각한 병리로 발전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허약한 성격이 형성되고 좋은 내적 대상과의 모든 관계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 분열된 시기심을 통합하는 단계에서 엄청난 불안이 생긴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도, 이러한 무의식으로 떨어져 나간 시기심의 정신병적 불안과 방어기제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정신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출된다. 클라인은 언니와 어머니를 향해 느끼고 있던 시기심에 대해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깨닫게 된 환자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녀는 혼자 어떤 여자와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등을 돌리고 있었고, 객실의 문에 기대있는 모습이 객실 밖으로 떨어질 것처럼 아주 위험하게 보였다. 환자는 한 손으로 그 여자의 벨트를 잡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의사가 이 곳에서 환자를 보고 있으므로 누구도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의 사항을 창문에 쓰여 있었다.

그녀의 연상은, 그녀가 꼭 잡은 대상이 자신의 정신병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신병적인 부분은 언니와 어머니의 젖가슴에 대한 시기심과 연관되어 있다. 그녀가 그 여인의 벨트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은 정신병적인 부분을 통합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녀의 경우, 이러한 시기심을 통합함으로써 언니를 재평가하게 되었고 그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었다. 자신의 정신병적 부분 가운데 일부분이 언니에게 투사되었는데, 그녀는 언니를 신경증적이라고 생각하곤 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난 뒤 언니를 재평가하게 되었으며, 자신 안의 분리된 부분도 점차적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찰했을 때 처음에는 몹시 충격을 받았고, 정신병이 발병하지 않을까 두려

워하였다.

시기심은 초기에 젓가슴과의 의존적인 관계 안에 있는 모든 유아에게서 작용한다. 바람직한 발달에서, 시기심은 좋은 경험이 가져다주는 사랑과 감사에 의해 극복된다. 시기심이 사랑과 감사에 의해 완화되면 유아는 이제 시기심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분리하거나 투사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우울적 자리에서 시기심은 사랑에 의해 수정되어 오이디푸스적 질투심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 시기심은 경쟁심이라는 통합된 감정으로 변화된다. 정신분석 과정에서 분리된 시기심이 분석되고 통합될 때, 정신분석적 관계와 환자의 전체적 성격은 자유로워지고 윤택해진다.

일부 유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과도한 시기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모든 발달단계에서 그렇듯이 확실히 외적 환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클라인은 좌절이 어떻게 시기심으로 이어지는지를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동료들이 제기한 다른 요소들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과도하게 자기애적인 어머니는 유아의 투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을 이상화된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 안에 있는 유아를 지속적으로 평가절하시킨다. 이로 인해 유아의 시기심은 강화된다.

그러나 클라인은 아이마다 내적으로 다른 선천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 점에서 클라인은 선천적으로 강한 구강기적 요소에 대해 언급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따르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이 선천적인 요소는 바로 구강기적 시기심 (oral envy)이다.

클라인은 생애 후기에 발견한 것들과 과도한 시기심이 선천적일 수도 있다고 확신하면 정신병리에 대해 낙관적이었던 자신의 견해를 어느 정도 수정하였다. 그녀는 시기심에 대한 분석과 분리된 시기심의 통합이 부정적인 병리적 반응을 극복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석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 시기심은 변화될 수 없는 선천적인 요소에 근거하며, 그것은 너무나 강력해서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저서와 이에 앞서 쓰여진 논문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유아는 시기심과 같은 섬세한 감정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며, 유아가 분노와 좌절은 느낄 수 있지만, 좋은 경험에 대한 시기심은 느낄 수 없다는 논쟁이 있었다. 또한 클라인은 '시기심'의 이론으로 재구성한 원죄 (original sin)의 교리로 되돌아갔으며, 일반적으로 유아에게 너무나 많은 책임을 부과한다고 비판 받았다. 어떤 면에서, 이는 출생시에 자아와 대상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논쟁의 연속이기도 하다. 즉 선천적인 공격성이 어린아이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와 공격성이란 순전히 반동적인 것이라는 견해 사이의 논쟁이 다시 일어난 것이다. 시기심에 관한 클라인의 가설은 원초적 자아와 대상 관계에 대한 다른 견해와 양립할 수 있다. 그녀가 말하는 원초적인 시기심과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초적인 자기에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프로이트는 대상에 대한 증오가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의 근원이 자신 밖에 있음을 깨달은 아이는 자기애적 분노로 반응한다. 이 자기애적 분노는 파괴적인 시기심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자기애가 원초적이며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고, 자기애적인 분노는 후기 항문기에만 나타난다고 보았다. 반면에 클라인은 대상관계가 처음부터 자기애와 공존하며, 시기심은 초기 구강기에 경험된다고 보았다. 자기애는 시기심에 대한 방어로써 강화될 수 있으며, 지나친 자기애는 원초적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라인은 증오가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자신의 이론에서 공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와는 달리, 사랑이 생의 초기부터 존재하고, 정신적인 성장과 통합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슬픔, 죄책감, 불안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대상들과의 복잡한 관계의 본질적 부분이다

사랑의 모든 느낌은 리비도적 충동자극, 특히 어머니 (그녀의 가슴)에 대한 리비도적 애착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발달의 아주 초기에서부터 증오와 공격성은 활동하며 강력한 리비도적 자극도 그러합니다. 유아가 엄마를 전체적 존재로 지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대한 리비도적 애착이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그녀에 대한 사랑의 느낌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유아는 가장 갈등적인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다음 견해를 취합니다.

슬픔, 죄책감, 불안의 느낌은 유아가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사디즘과 탐욕 속에서 자신이 미워하고 공격했던, 그리고 공격하게 될 대상과 동일한 대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될 때 유아에 의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 죄책감, 불안은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대상과의 복잡한 관계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보상에 대한 충동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승화를 위한 동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 [보상에 대한 충동]이 질과 양의 두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랑의 느낌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증오 아래에 묻혀 있는 사랑, 그리고 사랑을 감추고 있는 증오

내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사랑과 증오 사이의 이 가장 초기의 갈등을 발달의 중심적 위치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의 깊이 뿌리 내린 연결을 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고 위협에 처한 내적·외적 대상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죄책감과 불안의 견딜 수 없는 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자아는 그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자신의 사랑을 빛나게 만듭니다. 그의 고통은 부분적으로 그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대상에 대한 증오와 불평을 증가시키는 것, 즉 투사 메커니즘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나는 사랑이 증오 아래에 파묻히게 되는 방식들, 그리고 이러한 증오에 대항해 다시 형성된 반작용들을 이해하기 전에는 우리가 사랑 또는 증오의 크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석에서는 증오가 사랑에 의해 감춰져 있다는 사실 - 과잉보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항상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증오 아래에 사랑이 파묻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의 함의는 최근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공격적 충동 자극과 환상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증오, 따라서 긍정적 전이와 부정적 전이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의미했던 것이 무엇인지 독자들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증오의 초기 상호관계, 그리고 증오, 불안, 죄책감, 증가된 공격성 사이의 악순환에 책임이 있는 요소들의 초기 상호관계들을 평가함으로써만 우리가 사랑과 증오 양자의 명확한 모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증오의 가장 초기의 연결을 이해하는 것이 전이 상황과, 그것의 분석 작업에서의 더 광범위한 적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본질적이라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이 강의안은 [멜라니 클라인, 클라인의 정신분석 테크닉 강의] 책을 인용한 것입니다.